

'전주야행 천년벗담' 프로그램 운영

12일~13일·9월 30일~10월 1일 두 차례 진행... 전주의 역사 한밤중에 둘러보는 색다른 체험

수백채의 한옥처마 사이로 쏟아지는 달빛과 전주천에 드리워지는 기와지붕의 밤 그림자 아래서 천년의 세월을 거슬러 가는 색다른 경험이 펼쳐진다. 전주시와 문화재단, 전북도 (재)전주문화재단 전주야행추진단은 오는 12일~13일, 9월 30일~10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전주야행 천년벗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주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자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도시로 한옥마을은 이미 연간 1000만 관광객이 찾는 명소이자 전 세계 여행자들이 반드시 가봐야 할 아시아 3대 관광명소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전주한옥마을은 후백제의 왕도, 조선왕조의 분향, 양반의 풍류와 서민의 풍자가 담긴 전통문화예술의 현장

이자 근대 한국 민주주의의 시작과 한국 천주교의 산실이라는 숭한 역사기도 도도히 흐르고 있다.

전주야행은 이런 전주의 역사를 한밤중에 둘러보는 색다른 체험이다. 일 년에 두 번 진행되는 전주야행에서는 한밤중까지 문화재들이 개방돼 밤의 풍광을 품은 문화재의 멋을 관람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특히 전주야행은 단순히 도시의 경치를 둘러보는 여행을 넘어 문화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특별한 기회로, 누구나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즐길 수 있어 '한 여름 밤의 역사문화투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 조선의 역사 품은 한옥마을 야경

한옥마을 공간 안에 전주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유형 문화유산의 야경은 전주, 그리고 한국의 어제와 오늘을 그대로 비추고 있다.

전주한옥마을로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길 태조로를 따라가다 만나는 경기전은 태조 이성계의 위풍당당함과 마지막 황손의 서글픔이 함께 서린 곳으로 차분한 야경을 선사한다.특히 오목대는 태조 이성계가 승전을 지속하며 건축한 문화유산으로, 달빛을 받은 오목대와 오목대에서 내려다보이는 한옥마을 야경은 유명하다.

▲한 밤의 야외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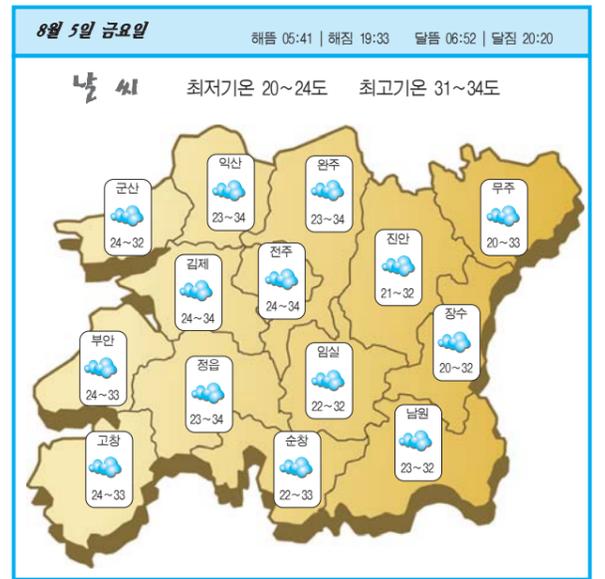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으로 꼽히는 전통성당은 낮이고 밤이고 인산인해를 이루는 전주한옥마을의 명소로 그레고리안 찬트 등이 천상의

목소리를 선사하는 '천상지음' 공연이 열린다. 전주향교 마당에서는 '묵향청음-선비와 풍류'가 펼쳐져 여행객들이 자유로움과 애절한 풍류음악을 즐기면서 하룻밤 전주의 선비가 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전주야행을 통해 예로부터 온 백성에게 가장 인기를 끌었던 대표적인 전통연희 중 하나인 줄타기 버나놀이를 선보인다.

이외에 전주야행에서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해 전주의 밤을 형형색색 물들이는 '강강수월래'가 경기전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펼쳐지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론리플래닛 여행상품개발·홍보마케팅 추진

여행작가 22명 초청 덕진공원·한옥마을 등 전주의 다양한 관광자원 돌아보는 초청설명회·팸투어 진행

세계 배낭여행의 지침서 론리플래닛에 의해 아시아 최고 여행지로 선정된 전주시가 론리플래닛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여행상품개발과 홍보마케팅을 추진한다.

전주시는 세계 배낭여행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론리플래닛이 전주를 2016 아시아 최고 여행지 3위로 선정한 것을 기념해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한 여행상품개발과 론리플래닛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마케팅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론리플래닛 선정에 따른 관광스토리텔링을 강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여행작가협회 여행작가 22명을 초청해 전주 덕진공원과 한옥마을, 국립 무형유산원, 전주가막축제, 전주부성 옛길, 한옥 레일바이크 체험 등 전주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돌아보는 초청설명회 및 팸투어를 진행한다.

또한 전주가막축제가 열리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은 전주가막축제 현장에 전주홍보부스를 마련하고 가막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안내 편의서비스를 제공기로 했다.

전주가막축제기간 동안 부스를 방문하는 선착순 100명에는 론리플래닛 선정기념 전주부채를 기념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전개한다.



▲"시원해"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4일 오후 어느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론리플래닛 선정을 알리는 인증 배지를 스티커로 제작해 관광안내소를 비롯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문화관광시설에 부착하는 등 전주 관광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홍보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코레일과 (사)전북 전통문화연구소의 협조를 얻어 지역 전통문화관광자원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유네스코 전주여행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2일 서울 용산역에서 전주홍보부스를 마련하고 여행상품홍보와 함께 전주방문 캠페인을 전개했다.

특히 시는 하나투어와 함께 론리플래닛 선정을 기념할 수 있는 전주 1박2일 브랜드 여행상품을 오는 9월까지 개발하기로 하고 상품개발에 대한 실무협의를 벌이는 등 론리플래닛 선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교육부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

올해부터 일반고 학생도 2학년2학기부터 원하는 때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일반고 학생은 3학년 1학기 때에만 1년 과정으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어 미리 진로를 결정한 학생도 3학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올해 4월 발표한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 일반고 2학년 학생에게 직업교육이 시범 제공된다.

5개 시·도에서 총 20개 직업교육 과정이 운영되며 4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두원공과대(스마트자동차), 영진전문대(영상콘텐츠 제작), 대경대(조리·관광프루트), 울산과학대(전자기기·금형) 등 11개 전문대학이 직

업교육에 참여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반고 특화 직업훈련 사업'을 통해 3학년 2학기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범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사 일정 등을 감안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89개 과정을 시범 운영하며 총 2113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남산업직업전문학교(친환경 실내 인테리어), 경기남부직업전문학교(3D 프린터를 활용한 기계설계제작) 등 60개 기관도 힘을 보탠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통해 찾은 꿈과 끼를 고등학교에서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고교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일반고 학생도 보다 일찍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양질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전북교육청, 시민감사관 공개 모집

전북도교육청이 시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

4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자체감사 활동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3기 시민감사관'을 모집한다.

시민감사관은 오는 10월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되며, 모집인원은 7명이다.

응모 자격은 ▲변호사와 회계사·건축사·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

당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 교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할 사람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할 사람 등이다.

희망자는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2-30 (9일간)